

'06년 3월 7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: 신·재생에너지과 김영삼 과장, 이창훈 사무관 (2110-5425)

## 국산 신·재생에너지기술 해외수출 길 열어

### - 말레이시아에 페타이어로 기름 만드는 공장 건설 -

- 한국의 환경·에너지설비 벤처기업인 (주)기경이 말레이시아 Octangon社와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하여 말레이시아 Selangor(셀랑고)州에 하루 120톤 규모의 페타이어 열분해 공장을 건설기로 함(3.8일 착공식 예정)
- 동 열분해 공장은 (주)기경이 산업자원부의 신·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사업으로 지원('96~'97, 3억원)된 에너지기술연구원의 “페타이어 오일화 공정 및 프랜트화 기술”을 이전받아 건설하는 것으로서
  - 동 기술을 활용하여 페타이어에서 하루에 벵커C유 60톤, 카본블랙 12톤 등을 생산하여 연간 약 100억원의 매출이 기대되는 바,
  - 기술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신·재생에너지 기술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음
- 국내에서는 동남아시아와 달리 페타이어 열분해를 통한 재생油에 대한 황 함유량 허가 기준이 높기 때문에 페타이어는 대부분 시멘트 킬른(고로) 소각 연료로 사용되고 있음
  - \* 재생유의 황함유량 기준(대기보전법) : 수도권 및 광역시(0.3% 이하), 기타지역(0.5~1.0% 이하)
  - \* 페타이어 이용현황('04년 기준) : 발생량 25만톤, 소각연료(시멘트 킬른 등) 65%, 가공이용(고무칩 등) 9.3%, 재생타이어 등 기타 22%

51면

- 산업자원부는 고유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신·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향후 폐타이어의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
- 폐타이어 열분해시 국내 환경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탈황기술과 고급 연료화(경유급)에 관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 중이며
  - \* 폐타이어 관련 기술개발 지원과제('06년 기준) : 마이크로파 가열식 폐타이어 열분해 기술개발'05~'08, 예기연 등 4개 기관 : 총사업비 11억(정부 8억, 민간 3억)
- 그간의 기술개발 성과를 토대로, 산학연 과제 공모 절차를 거쳐 연 3000톤 규모의 고효율 폐타이어 열분해 플랜트 실증연구('06~'09)를 추진할 계획임